

간 암

편 집 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암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면에서 암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상식을 증상별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보사부자료제공

3. 간암의 증상

간암의 초기 증상은 간경변증으로 환자의 상태가 뚜렷한 이유없이 악화되는 것이다. 간경변증으로 치료 받고 있던중 이유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황달이 갑자기 심해지며 복수가 종전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간암으로 진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복수를 뺐아 보면 간경변증때에는 맑은 짙은 색깔인데 반하여 간암때에는 암덩어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시뻘겋게 변하기도 한다. 또한 암덩어리가 커짐으로써 오른쪽 간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진찰해 보면 간경변증의 소견을 보이는 간표면에 돌덩이 같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암괴가 만져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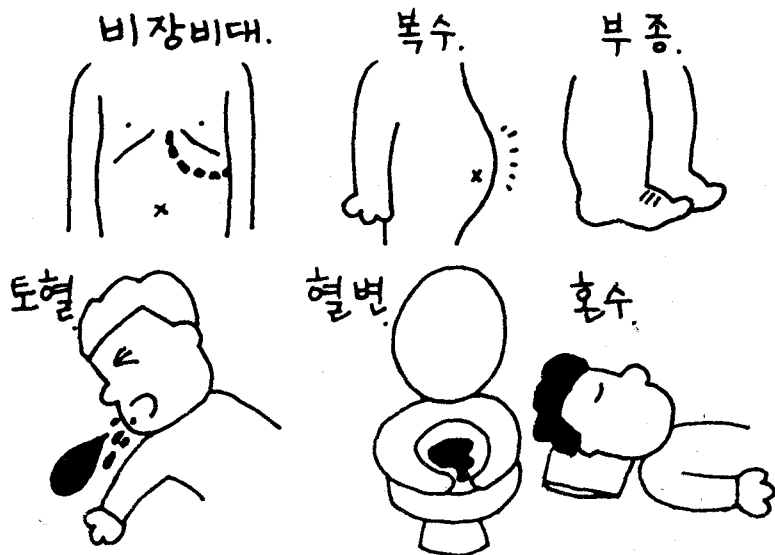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의 증세가 악화

된다든지 전보다 더욱 딱딱한 덩어리가 간에서 만져질 때에는 간암을 고려해야 한다. 간암의 말기 증세는 점차 암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정상적인 간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여러가지 간부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황달이 심해질 수도 있고 복수가 차며 간부위에 통증이 심할뿐 아니라 무엇 보다는 먹을 수 없도록 소화불량이 심해져서 몹시 쇠약한 상태로 진행된다.

암덩어리가 더욱 커져서 복벽을 밀어올려 겉에서 보아도 덩어리가 튀어나온 것이 확인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도정맥류 출혈이 생기거나 간성혼수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간암을 덮고 있는 막이 저절로 터



합병증은 간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문맥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긴다.

저서 복강내로 피가 쏟아져 나와 배가 몹시 팽만하게 되고 심한 실혈로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

간세포 기능장애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간경변증의 말기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쉽게 피곤하다든지 허약감이 들거나 구역질이나 식욕감퇴, 또는 헛배가 부르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등 소화불량 같은 증상외에 오줌이 진해지며 황달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잇몸에서의 출혈이나 코피가 쉽게 나고, 성욕이 감퇴되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월경이 없어지기도 한다. 얼굴이 흑갈색으로 거칠어진다든지 눈 흰자위에 황달이 나타나거나 주로 뺨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보일 수도 있다. 목이나 가슴에는 거미줄 모양의 혈관종이 생기고, 겨드랑이의 털이 빠지거나 남자의 젖이 여성

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며, 고환이 위축되기도 한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혈관의 확장되어 벌겋게 보이거나 치질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간세포 기능장애는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증상없이 지내다가 합병증이 생겨서야 비로소 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수도 많다.

합변증은 간의 구조가 파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되게 되어서 이른바 문맥압의 상승을 일으키는데 기인한다.

지하도 공사로 큰길이 막히면 차가 밀리듯이 간으로서 혈류가 원활치 않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정맥, 즉 문정맥에 피가 몰려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결과 비

장이 커져서 왼쪽 늑골 밑으로 만져지기도 하며 복수가 차서 배가 부르기도 한다.

다리에 부종이 함께 오는 수도 많으며, 큰길이 막히면 피가 셋길을 통해 흐르게 되므로 좁은 길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혈관이 터져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관이 파열되는 가장 위험한 곳이 식도가 정맥으로서 터지면 피를 토하거나 새까만 피똥을 누게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흡수된 독소인 질소물질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몸에 해롭지 않는 성분이 되어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간경변증의 말기에는 간에서 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을 통과하지 않고 셋길로 빠져 전신 혈액속으로 들어가 이른바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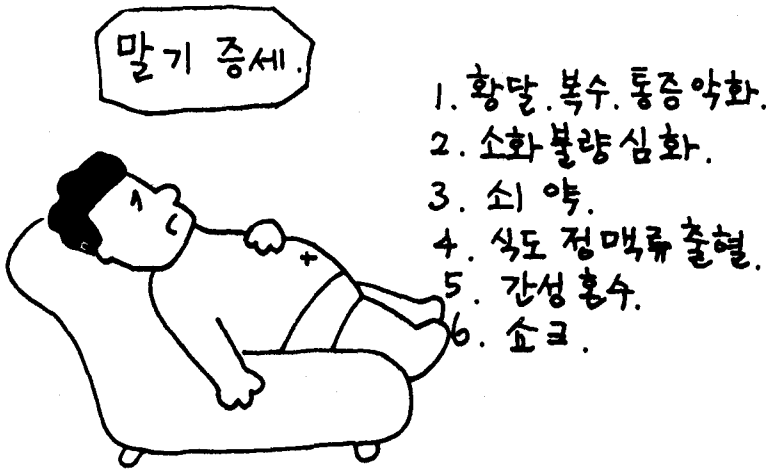
간경변증으로 치료 받고 있던중 이유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황달이 갑자기 심해지며 복수가 종전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간암으로 진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간암의 치료방법.

간암이 확진되면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간암은 특히 진생속도가 빠르므로 환자는 진단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능한 환자가 여생을 안락하게 영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불치의 병이라고 쓸데없이 한약을 쓴



간암의 말기증상은 암세포 증식에 따라 간부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든지 수기도등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환자는 더 많은 부담을 병든 간에 받게되고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간암 이상의 고통을 받고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술에 의해서 암종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간암은 대부분 간경변증에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간경변증이 심하지 않고 한 부분에 국소적으로 간암이 생긴 경우라든지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안되었을 때에는 수술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심한 간경변증에 합병하여 생긴 간암인 경우 암조직을 떼어 내더라도 나머지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의 전단을 받게 될 때 쬐이면 이미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그리 많

지 않다.
 간암의 수술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간기능검사뿐만 아니라 간스캔, 복강경검사 및 간동맥 조영술과 같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간경변증이 심하지 않고 간암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야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데, 수술이 불가능한 예에 대해서는 최근 항암제를 암세포로 가는 혈관이나 말초정맥에 주사함으로써 일부에서는 치료효과를 보며, 한편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통증을 경감시킬 요량으로 끊임없이 암화학요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간암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인위적으로 혈전을 형성케하여 패쇄시킴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간장 이식에 의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